

2016년 10월 16일,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, 문경미 조사.
강충희(남, 1938년생, 애월읍 유수암리)

[제보자] 지혜가 있는 사람은 위기를 면한다는데, 강소은이란 분이 웃동네 사람 빌어서 밭 갈려고 가는데, 낮 되가니까 켓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점심을 먹겠다고 물 길러 갔는데, 난데없는 벼를 가지고 왔단 말이며.

[조사자] 음. 호미 비슷하게 생긴 거?

[제보자] 예. 벼이라고 해요.

“이 사람이 이거 어디 벼이나?”

“저기 가다 보난에 밭을 잘 가는데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벼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가져와 버려십주.”

“아이고 그 사람 갈던 밭을 어떻게 허랜 가져왔수과.”

“헐 수 없주.”

경 행 점심을 먹는다 틀림없이 찾으러 올 거다 행 소은이란 사람이 큰일나겠다. 점심때 된장국 먹으려고 된장을 가져갔던 걸 벼에 부르니까 흙에 닿았던 것처럼 삽시간에 벌겋게 되는 거라.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

“거 어떤 못된 놈이 밭 갈던 쇠를 세워 놔두니까 벼를 떼어 가져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 혹시 못 뽑디가?”

“아이고 우린 못 봤수다. 요건 아니우파.” 허니까

“아니, 내 건 허영 혼 거주. 벌겋게 녹슨 것이 아니주.”

경 행 그 사람이 지혜롭게 넘겼다는 이야기.

- 핵심어 : 켓물, 강소은, 켓물, 쇠, 벼, 지혜